

‘아픈 역사’ 끌어 안고 ‘추억 창고’ 가득 채웠다

도시재생

문화가 해법이다

국내편 (8)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완주=박진현 문화선임기자

광주에서 자동차로 1시간 여쯤 달리다 보면 완주군 삼례읍이 나온다. 전주시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이 작은 마을은 평온한 풍경과 달리 역사의 ‘아픈’ 과거를 지니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호남 평야에서 수탈한 쌀을 군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실어 나르기 전 일시적으로 보관했던 양곡창고가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당시 건립된 창고 5동과 1970~80년대에 지은 창고 2동으로 구성된 양곡창고는 지난 2010년 초까지 창고로 사용됐으나 전라선이 복선화되고 철로와 역사가 옮겨가면서 제 기능을 잃었다. 게다가 2000년대 초 전주 등 인근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한 때 2만 여 명이었던 인구는 1만6000명으로 급감했다. 이때부터 전주의 위성 지역이 아닌 완주군만의 독자적인 ‘색깔’을 갖자는 움직임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1920년대 일제 수탈의 상징적 장소였던 삼례 양곡창고는 지난 2010년 전라선이 복선화되면서 수명을 다했지만 책 박물관, 갤러리, 책 공방 등 다양한 문화공간들로 리모델링해 한 해 수만 여명이 찾는 예술촌으로 탈바꿈했다. /완주=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800년대 활판기계와 납활자, 재봉틀 등이 보관된 책공방 아트센터.



고서들과 1950~60년대의 교과서 등을 전시하는 책 박물관.



디자인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자인 뮤지엄.

**일제강점기 쌀 수탈 양곡창고
양철 지붕 등 옛 모습 지킨 채
박물관·VM아트갤러리 공존**

**VM아트갤러리
과거 숨결, 미디어 아트와 만남**

**책 박물관
페스티벌·벼룩시장·고서대학
1920년대 교과서 그림 상설전**

**김상림 목공소
목가구 제작 체험·전문인력 양성**

**책공방 아트센터
200~300년전 獨 인쇄기·납활자**

**디자인 뮤지엄
산업·패션, 시대 변천사 한눈에**

이런 분위기에서 슬모가 없어진 삼례양곡창고의 활용방안은 완주군의 화두로 부상했다. 실제로 양곡창고 일대를 둘러싸고 아파트를 건립하자는 의견과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자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섰다. 수개월 간의 열띤 공방 끝에 어린 시절 이 곳에서 뛰어 놀았던 삼례 주민들의 추억을 되돌려 주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재개발 대신 보존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난 2010년 말 완주군은 총 7개 동의 창고를 16억 원(부지제외)에 매입 한 후 삼례양곡창고 활용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다.

양곡창고에 생명을 불어 넣은 건 예술이었다. 주민, 전문가, 예술인 등으로 구성된 TF 팀은 1만1825㎡ 규모의 양곡창고 주변을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예술촌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2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6월, 삼례문화예술촌이 2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3500여 평의 대지에 조성된 예술촌의 창고 7동은 책 박물관, 김상림 목공소, 책공방 아트센터, 문화카페 오스, VM아트갤러리, 디자인 박물관, 종합안내센터로 변신했다. 디자인 박물관, 종합안내센터로 변신했다. 한 명의 아트디렉터가 총괄하는 여느 예술촌과 달리 책 박물관의 박대현 관장, 김상림 목공소의 김상림 대표, 책공방 북 아트센터의 김진섭 대표, VM(Visual Media)아트갤러리의 이기전 관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예술감독을 맡아 공간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대표들로 구성된 삼례에에미미 협동조합이 완주군으로 부터 위탁을 받아 매년 5억 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난 8일 삼례예술촌에 들어서자 허름한 창고 건물들이 눈에 띄었다. 산뜻하고 화사한 모습을 기대했던 것과 달리 건물들의 외벽은 ‘삼례농협창고’라는 글씨가 그대로 남아있어 예술촌의 면모를 느끼기 힘들었다. 오랜 세월의 무게를 한눈에 가늠할 수 있을 만큼 고색장연한 모습이었다. 양철 지붕과 벽체는 빨갛게 녹이 슬고 회색 벽에는 수십 년 된 목재 사다리도 걸려 있었다. 하지만 비주얼 미디

어 아트를 전문적으로 전시하는 VM아트갤러리에 들어선 순간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다. 겉에서 보면 낡은 창고이지만 내부는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VM아트갤러리는 이 같은 삼례예술촌의 ‘반전매력’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건물 내부의 옛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이 곳에는 W 모양의 둥근 나무 기둥을 작품의 재료로 활용한 현대적 영상물을 만날 수 있다.

VM아트갤러리의 옆에 위치한 창고는 삼례예술촌의 자랑인 책 박물관으로 탈바꿈했다. 완주를 ‘전북의 헤이리 마을’로 가꾸기 위해 완주군이 공을 들인 아심적이다. 10년 동안 강원도 영월에서 운영된 책 박물관(관장 박대현)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삼고초려 끝에 고서수집가 박관장을 이곳으로 불러 들인 것이다. 책 박물관은 기획전과 무인서점, 북 페스티벌, 헌책 베품시장, 고서대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으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어 당긴다. 이 가운데 ‘교과서 그림전’은 1920~50년대의 쉼본·자연생활 같은 책을 볼 수 있고 철수·영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60~70년대 교과서도 전시돼 있다.

책공방 아트센터는 책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공간이다. 책의 기획·디자인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1800년대 후반 선교사들이 성경을 찍기 위해 사용한 활판 기계, 200~300년 된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인쇄기를 비롯한 납활자·재본기·재봉틀 등 1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디자인 뮤지엄은 산업디자인, 역사성 디자인, 모자 디자인, 패션 디자인, 학생들의 졸업 작품 등 다양한 작품을 전시해 디자인의 시대적 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김상림 목공소는 책과 관련된 다양한 목가구의 전시, 제작 및 체험 공간이다. 사람 모양으로 깎아 만든 자목상, 못을 사용하지 않은 짜맞춤 가구, 장인들이 사용하던 공구들을 전시하고 있다. 목수교실, 목공교실을 운영해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이처럼 역사의 어두운 현장을 문화 자산으로 활용해 지역을 재생시킨 삼례 예술촌은 불

과 1년 만에 전 국적인 명소로 떠올랐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문화와 거리가 멀었던’ 삼례읍은 광주 전남 권 뿐 아니라 서울, 부산, 대구 등 각지에서 몰려 드는 방문객들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3만 여 명이 다녀갈 정도다. 지난해 7월 한국관광공사와 삼례예술촌을 가볼만한 관광지로 뽑은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2013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통령상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특히 인근의 전주한옥마을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서울 지역 여행사들이 한옥마을과 삼례예술촌을 패키지로 묶은 투어프로그램을 내놓아 방문객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삼례예술촌이 지역재생의 모델이 된 데에는 아픈 역사를 감추지 않고 문화로 재탄생한 발상의 전환이 있었다. 이제는 흔히 볼 수 없는 고서적, 목수들의 연하, 진귀한 인쇄기와 조판활자기 등 차별화된 볼거리들은 삼례예술촌만의 콘셉트다. 여기에 다양한 기획전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를 높이는 것도 삼례예술촌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비결이다.

완주군 문화관광과 김미경씨는 “삼례예술촌이 주민들에게 빠른 시간내에 다가갈 수 있었던 건 지역 주민들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양곡 창고를 문화공간으로 되살려 낸 게 주효했다”면서 “방문객들이 잠시 스쳐가지 않고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보완해 완주군의 랜드마크 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hpark@kwangju.co.kr

※이 기획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타사상품 포함 www.hong79.com ☎ 1899-0240

소파 식탁 보신 판매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런칭 가정용/업소용 150~400cm

NAVER **홍스페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 옆) **홍스페이스** 가구빌딩